“2015 한국정보처리학회”

일시 : 10.29 ~ 11.1

장소 :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한국정보처리학회가 주체하는 추계학술발표대회를 다녀와서…

2011253048 윤성빈

이번 학회는 최광훈 교수님과 학부 인턴생들과 함께 학회를 참석했다.

논문주제는 “ 안드로이드 앱의 랜덤 인텐트 테스트에서 동일한 에러 로그를 자동으로 그룹화하는 방법”이다. 이 논문은 저번에 발표했던 랜덤 인텐트 테스트를 통해 에러를 발견하는 논문의 확장된 논문이다. 이번 학회에서는 학부생 인턴 현순이가 구두 발표를 진행하였다. 감독관님의 질의 응답도 있어서 많이 긴장했을 터인데 현순이는 학부생 답지 않게 발표를 잘 마무리 지었다. 구두 발표, 포스터 발표를 다 진행해보았는데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연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고 다른사람들에게 이를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학회를 참석해서 컴퓨터 전공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 수업에서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확장된 개념과 다른 부분을 내 전공과 비교하여 생각 할 수있는 능력이 조금 생겨 난 것 같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추계학회이어서 바람이 많이 불어 날씨가 쌀쌀하긴 했지만 3 학년 2 학기에 진행 해야하는 프로젝트를 시작 하기 전에 행복한 추억 만들고 에너지 충전을 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들 이었다.

한국정보처리학회를 다녀와서

2013253062 최지선

저번에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를 다녀오고 운이 좋게 또 학회에 갈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는 한국정보처리학회에 다녀왔다. 저번 학회에서는 발표자라서 긴장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발표자가 현순오빠여서 더 편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었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앱의 랜덤 인텐트 테스트에서 동일한 에러 로그를 자동으로 그룹화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회에 참여했다. 내가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 발표인데다가 첫 발표여서 같이 긴장이 됐다. 오빠가 발표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시간도 잘 맞추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잘해서 분위기 좋게 끝났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다음 발표자들이 발표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역시 이번 학회에도 흥미로운 주제가 많았다. 하지만 학부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참여하는 학회여서 그런지 내용이 더 어려워서 그런지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었다. 전문 지식을 더 쌓아서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더 깊게 알아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회가 끝나고 제주도에 온 김에 카카오 본사에 갔다. 건물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일할 맛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할 의욕이 막 샘솟았다. 학회는 컴퓨터 전공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해주는 좋은 경험인 것 같다. 이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2011253032 김현순

여름방학에 진행한 인턴과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논문을 써보았고, 또 기회가 되어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의 기회도 얻게 되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색하고 약간 긴장이 되었다. 학술대회 발표장에 도착하자 자신의 연구를 보여주러 온 사람들이 가득했다.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 약간 긴장한 듯 한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다. 연습할 때나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뿐 긴장은 하지 않았지만, 발표시간이 다가오자 점점 긴장이 되었다. 하지만 약 5 개월 동안 진행해왔던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라 자신은 있었다. 드디어 발표시간이 다 되어가자 감독관 한 분과 다른 발표자분들이 들어왔다. 첫 번째 발표라 좋았다.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보고 했으면 오히려 더 긴장했을 것 같다. 시작이 좀 긴장되었지만 막상 입을 떼자 연습한대로 발표를 할 수 있었고, 마지막 감독관님의 질문에 살짝 긴장했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논문을 쓰고,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물론 혼자 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교수님과 학부인턴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번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